

# “일다운 일” 의제의 발전적 논의를 위하여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대응으로 191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노동권을 촉진하기 위한 UN의 전문적인 독립기구(특별기구)이다. UN의 특별기구 중 ILO는 노사정의 삼자구성을 원칙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정규 구성원으로 인정한 유일한 정부 간 국제조직이다. 그러므로 ILO는 정부 간 공식 국제기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NGO 단체와 같은 비정부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ILO가 제시하는 담론은, 정부는 물론 노사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주제임은 물론,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실천 담론이 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서 ILO의 기본 의제이자 담론은 “Decent Work”를 둘러싸고 이루어져 왔다. 1999년 국제노동회의에서 천명한 “Decent Work”의 개념은 ILO가 설립된 19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던 가치와 이념들을 재구성하고 종합한 것이다. ILO는 1999년 제87차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1999)에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남녀에게 일답고 생산적인 일을 제공하는 것이 ILO의 당면한 최우선 목표”라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Decent Work”를 보장하는 것이 ILO의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Decent Work의 개념이 사용된 지 25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이에 관한 공통의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Decent Work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에서 잘 드

러나고 있다. 기존에 “Decent Work”에 대한 번역을 살펴 보면, “양질의 노동/일자리”, “괜찮은 일/일자리”, “인간적 노동/일자리” 등으로 사용되었고, “양질의 일자리” 정도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듯하다. 그러나 “양질”이라는 의미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나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진 “Decent”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표현은 ① “Decent Work = Good Job”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② work를 단순히 일자리로 해석할 경우 decent work에 포함되어 있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체계가 간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결국 ILO의 논의를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서 “일다운 일”이라는, 다소 동어반복적인 의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sup>1)</sup>

이처럼 Decent Work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용어 번역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ILO의 Decent Work를 둘러싼 논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일다운 일 지수(Decent Work Indicators)”를 통한 회원국 간의 정량적 수준 비교이다. “일다운 일 지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취합한 뒤 지표화하여 회원국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최초의 지표가 제시된 이래로, “일다운 일 지수”는 다양한 지표(18개의 주요 지표, 25개의 부가 지표, 12개의 배경 지표)를 통하여 회원국 간 일다운 일의 달성 정도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노동의 질이 단순한 수치로 표현되기 어렵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다운 일 지수”는 회원국 간의 비교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노동현실을 개선하여 “일다운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화와는 반대로, ILO는 일다운 일을 둘러싼 개방적·포괄적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장(場)을 마련하기 위하여, The Regulating for Decent Work(이하 RDW)를 개최하여 왔다. 2009년부터 2년마다 열린 RDW는 노동권의 보장에 기반한 경제성장 논의를 위한 다양한 학제 간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을 공

1) 이상의 Decent Work의 해석에 관한 내용은 김근주(2019), 「일의 미래 : ILO의 미래담론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2019년 6월호의 내용을 발췌·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검토한 “일다운 일”이라는 번역의 타당성은 황준욱(2005), 「ILO의 ‘일다운 일(decent work)’에 대한 발전적 논의」, 『월간 노동리뷰』에서 가장 먼저 제기했다는 점을 밝힌다.

유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다운 일” 의제의 발전적 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하면서도 새롭고 다양한 주제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펼쳐지는 장이 RDW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제1회부터 지금까지 RDW 콘퍼런스 공동주최 기관으로 한 축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sup>2)</sup>

이후 소개하는 3개의 주제는 제8차 RDW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일다운 일을 매개로 한 확장적 논의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일의 의미와 가치, 성별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새로운 고용환경에서의 연대와 사회적 대화를 다루고 있는 이번 특집 원고들이, “일다운 일”이라는 담론이 부각되고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다시 한 번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KLI**

2) RDW의 지속적인 협력기관(Network)은 다음과 같다.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the Korea Labor Institute (KLI), the University of Amsterdam’s Amsterdam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 Hugo Sinzheimer Instituut (AIAS-HSI), the University of Melbourne’s Centre for Employment and Labour Relations Law (CELRL), Jawaharlal Nehru University’s Centre for Informal Sector and Labour Studies (CISLS), the University of Durham’s Decent Work Regulation Project, the Cornell University’s ILR School, the University of Duisburg-Essen’s Institut Arbeit und Qualifikation (IAQ), the Institute for Applied Economic Research (IPEA), the University of Manchester’s Work and Equalities Institute (WEI).